

보도일시 | 2025년 7월 10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장생포애니메이션영화제 개막…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 문화 축제’

장생포문화창고(고래문화재단 운영)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제2회 장생포애니메이션영화제(JAFF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6층 소극장W(메인 상영관)과 4층 특별전시관 두 곳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영화제는 다문화가정과 장애인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와 참여의 장도 마련되어, ‘사람과 세상을 잇는’ 의미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작으로는 애덤 엘리엇 감독의 ‘달팽이의 회고록’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2024년 프랑스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크리스탈 작품상)을 수상한 클레이 스톱모션(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애니메이션으로 불운한 운명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는 한 소녀의 성장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냈다.

폐막작은 장-클리스토프 로저, 줄리앙 첵 감독의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멜로디 소동’으로 음악과 우정을 중심으로 한 두 주인공의 따뜻한 모험이 아이들과 어른 어른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는 울산 애니원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졸업작품 3편도 상영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총 35편(장편 19편, 단편 16편)의 국내외 애니메이션이 상영되며, 특히 안재훈 감독의 ‘무녀도’ 상영 후에는 감독과 관객이 직접 소통하는 GV(관객과의 대화)가 마련된다. 이 자리에서는 안 감독의 신작 ‘아가미’의 비공개 영상이 최초 공개될 예정이어서 애니메이션 팬들의 큰 기대를 모은다.

안 감독은 “울산에서 애니메이션이라는 이름을 걸고 영화제가 열리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라며, “이 기쁨은 찾아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커지고, 바다보다 넓은 문화의 힘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저의 작품이 그 일부가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영화제 기간 중에는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프로그램 및 상영 시간표는 장생포문화창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래문화재단 전시기획팀(☎ 052-226-001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7. 8.
